



웨신총회 2017 강도사 연수교육성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귀히 쓰는 그릇” (딤후 2:21)이란 주제로 5월 19일(금) 오전 11시부터 20일(토) 오후 1시(1박2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소재 YBM 연수원에서 2017년 총회강도사교사 합격자, 각 노회 강도사, 또는 강도사 인허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 앞서 총회서기 박우재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 부회계 최선녀 목사의 기도, 교육부 이숙희 목사가 성경봉독(왕하 2:9-10)을, 연합노회 김미라 목사가 특송한 다음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준비된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총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강도사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수교육에 동참한 강도사 여러분은 엘리야를 따라 길갈과 벧엘, 여리고와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와 같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영감을 갑절로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웨신총회장 이영풍 목사

또한 이영풍 총회장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과 야생에 대해 예를 들면서 신학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과 같아서 목회에 큰 효과는 없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선배 목회자를 만나 지도를 받는다면 미래 준비된 목회자로, 목회관이 바로 설 것이며 현장목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이 꾸준한 인내와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준비된 목회자가 되기위해선 거치른 비바람에도 힘없이 쓸려지는 온실을 떠나야 하고 이제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에, 소낙비가 내리치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사생결단을



웨신총무 신언창 목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를 보여드릴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면서 능력있고 강한 목회자로 거듭나라며 격려했다. 이어 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와 직전회장 신동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환영사가 있은 후 1박 2일간의 강도사 연수교육이 시작되어 첫날 1교시에 “이단과 그 대응 방안”에 탁지원 소장, 2교시 “미래 지도자와 리더십”에 정순옥 박사, 3교시에 “미래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세”에 박형룡 박사, “총회 오리엔테이션”에 총무 신언창 교수, 둘째 날 4교시는 “N세대 회복사역과 문화교육”에

신상언 선교사, 5교시에 “새로운 Leadership Paradigm 추구” 허창범 박사 등이 각각 강의했다.

이어 중부노회장 황봉기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진행되고 총회 부서기 김영환 목사가 기도를, 교육부 마순덕 목사가 성경봉독(창 2:15-17)하고, 부총회장 하종우 목사는 “진리 수호”란 제목으로 설교 하였으며, 총무 신언창 목사의 인사와 광고가 있은 후 증경회장 이용규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이영풍 총회장은 2017년 총회 강도사연수교육에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한 36명의 강도사를 격려하고 수료증 수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웨신총회 총회장 이영풍 목사(빛 교회)는 오는 6월 19일(월)-21일(수) 2박3일 총회산하 교역자 부부(목사, 담임교역자)동반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 한국여성수원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란 주제로 목회자수련회가 개최되며, 또한 웨신총회 2차 강도사교사가 7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라며 총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한국교계의 표준총회로서 머지않아 중형교단으로 성장할 것을 믿는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설립 34주년을 맞는 목포주안교회

1983년 6월 13일 목포시 산정3동에서 목포주안교회가 설립되어 1984년 5월 5일 1차 예배당이 완공, 1989년 7월 17일 연건평 124평에 2차 예배당 입당예배, 계속된 부흥과 성장으로 2008년 12월 31일 대지면적 3,295.87㎡(997평)에 중형교회로 우뚝 솟은 가운데 입당예배가 드려진 목포주안교회는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 모두가 기도와 단결로 현재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모상련 목사는 전남 무안군 삼함읍 남해5로 지역에 남학주안교회와 목포시 용해지구로 지

역에 용해주안교회를 세워 본 교회는 물론 두 곳의 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안비전복지센터를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배트남과 캄보디아에 주안선교센터를 준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모상련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교회사명선언을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2. “율바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저스타임즈 JTNTV인터넷방송 직원일동은

목포주안교회 34주년을 맞은 모상련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웨신 목회자수련회

주제 :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시편 1:3절)



이영풍 목사
(빛교회)



신동근 목사
(명예대회장)



김안식 목사
(설만찬물가교회)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하종우 목사
(바울선교회)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본 총회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인 웨신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큰 꿈을 가진 모범총회로서 주님께 영광을...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 010-8602-3009

●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 21일(수)

· 개회예배/6월 19일(월) 오후 5시 · 접수 / 오후 3시부터

● 장소 : **한국여성수원원**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 148-19 ☎033-530-4300

● 대상 : 총회산하 교역자 부부(목사, 담임교역자)

● 회비 : 개인당 7만원

· 노회별, 개인별로 선입금 또는 접수당일 납부

● 찬조, 후원하실 분

계좌 :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 둘째 날 오전과 오후 주변 관광지 투어 및 체육행사가 예정

아웃도어, 모자, 썬글라스, 워킹화 필수

☐코스 : 목동등대-추암바위해변-옥계해변길-정동진 부채길-모래시계공원 등

● 간식, 물품, 기념품, 경품 후원하실 분 환영합니다.

● 대중교통편 안내/노회별 차량 카풀.

강릉시내(동부시장, 남대천)에서 옥계행 시내버스 이용(40분 소요)

● 유익한 특강과 뜨거운 영적충전 시간이 준비되어 있음, 많은 참여를...

서울고법, ‘홍재철 목사 제명은 무효’

1심이어 2심서도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

홍재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등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는 홍재철 목사의 제명을 무효화한 1심 결과를 인용하며 홍재철 목사에 대한 이영훈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종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홍재철 목사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결론에서 ‘원고 홍재철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의는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총회 대의원) 개인인 위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이고, 이 사건 제1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는 피고의 임원(총회 대의원)인 위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홍재철의 나머지 각 결의하자 주장에 대해



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 홍재철을 징계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 홍재철은 피고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각 지위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닦고 있으므로 원고 홍재철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홍재철이 피고 대표

회장으로 재임하던때인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임원회가 총회 대의원 등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임원 등 개인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행위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상당한 상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

19776 판결 등 참조), 원고 홍재철이 피고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피고 임원회가 개인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그 징계권 행사가 무효임은 별론으로하고, 피고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에서 ‘원고 홍재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 홍재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한편, 홍 목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진호 목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이진호 목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1년)이 2017년 1월 22일 이미 경과해 사실상 지위가 회복되어 판결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 패한 한기총은 대법원에 항소 할 가능성은 낮아 홍재철 목사의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홍 목사가 위기에 처한 한기총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장 호헌 총신 제15회 신학 포럼 열어

예장 호헌 총회 신학교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신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5회 신학포럼은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오전 11시부터 4:30분까지 열렸다. 개회 예배와 함께 강의를 하였다.

개회예배는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가 사회를, 이순제 목사가 기도, 최선의 목사가 성경봉독을, 도길음 목사가 특송을, 상임회장 조조복 목사가 설교를 김남욱 목사가 봉헌기도로, 예장 예능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축사를, 총회장 한홍교 목사가 격려사를,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가 광고를, 이정호 목사가 축도를 각각 맡았으며, 폐회 예배는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가 사회를, 김희선 목사가 기도, 차재준 목사가 설교를,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가 광고를, 총회장 한홍교 목사가 인사 및 축도를 각각 맡았다.

개회예배에서 축사를 맡은 광영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능) 총회장)는 교단 연륜과 15회나 매년 포럼을 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노고를 치하하며, 같은 (사)한기보협 회원교단으로서 선배교단에 후배교단이 많이 배우고 있으며, 사50:4 말씀과 같이 설교자는 학자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의 슬로건대로 잘 배



워서 남 주기를 바란다고 축하를 해주었다.

이날 강사는 기독교 자유강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기독교자유강리회감독 (사)한국기독교교부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예장 합동근본 총회장 송춘길 목사가 나섰다. 호헌총회장 한홍교 목사는 “잘 배워서 남 주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5년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 총회장은 매년 한국교계 석학들을 초빙하여 신학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포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옛 신앙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호헌총회는 1962년에 설립되어 한국교단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교단이 되었지만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총회 신학교는 과거 총회의 결의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학문 연구와 그 실천 방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본교가 개교되었으며, 초대학장에故 박병훈 목사님이

취임한 이후 많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신학부 62회 대학원 3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총회장 한홍교 목사는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집시키는데 힘을 다하고 있으며, 총회의 질적 향상과 한국교회에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신학포럼에 많은 시간적 정성적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신학포럼 조직은 대표 총회장 한홍교 목사, 상임회장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 공동회장 차재준 목사, 이형규 목사, 이정호 목사,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 감사 오다윗 목사, 총무 김남욱 목사, 서기 최선의 목사, 회계 박성민 목사, 특별찬양과 인도에 찬양사역자 도길음 목사, 이환호 목사 등이 섬겨주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방송 <http://jmtv.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사 광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소명 회복하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세미나

“사명 앞으로 한 걸음 더”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6월 20일(화)~22일(목) 개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8228: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8228: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 주최하고 CTS 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

일보,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되는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 세미나’가 오는 6월 20일(화) ~ 22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된다.

이번세미나는 화요일 오전 9시

부터 시작하여 목요일 저녁을 기준으로 마지막에 2박 3일을 짝 채운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20일(화)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관계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모들은 시간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는 데 먼 지방이나 섬 지방 목회자사모들은 세미나 전날인 월요일에 세미나 장소인 예정교회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인데 단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할 강사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성산교회 오병열 목사,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늘푸른진전교회 이석우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상철 목사, 부산반송서교회 장학덕 목사, 기쁨의교회 노완우 목사, JGM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 청주금식기도원 백효선 원장, 세계터미널선교회 하귀선 선교사,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 등이다.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사모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등록문의 www.samonews.kr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30길 81(상봉동 308-1) 중앙산·경춘선·7호선 상봉역 7번 출구 TEL. 02)2207-8504 ~5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빌라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정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제대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새미기도회	오후 9:00	중 .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새 정부 출범 이후 평화를 위한 기도로 기독교인들 분단선에 다시 모인다

6월 3일,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일기도회 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일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의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지켜보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한창 들떠 있던 중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일깨워준다.

분단 72년을 맞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분단-중요-대결 구도가 만들어내는 답답한 피비우스의 피안에 갇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무거운 반평화의 구도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를 좌와 우, 남과 북으로 갈라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두 군가는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로를 겨누며 서 있다. 그런가하면 여전히 이러한 반평화의 분단현실에 기대어 연명해 가고 있는 한 무리의 권력자들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불안과 증오를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며, '평화'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허한 수식어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5년, 우리는 분단 70년을 상기하며 함께 모여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러나 하루, 한 번에 그치고 마는 기도는 미련하고 무력한 것일 뿐이다. 72년 동안 굳어지고 갈라진 경계를 허물고, 화해와 평화라

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많이, 간절하게 모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가 선 경계가 벼랑이 아닌, 또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17년 6월 3일 오후 6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5개 기독교단체와 33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분단선에 서서 화해의 큰 숨을 쉬고, 평화의 기도를 심고자 한다.

분단이 만들어낸 슬픈 광장에 둘러서서 탄식하며 소망할 것이다. 반평화의 기운을 제압하는 기도의 함성이 터질 때, 하늘의 평화가 깊

게 패인 한반도의 슬픈 분단선을 지워 내리라 믿는다.

이날 기도회는 부흥한국, 박순아, 송정미, 이길승, 홍순관, 뉴코리아네트워크(새터민) 등이 참여하는 평화콘서트로 시작한다. 콘서트 다음 이어지는 통일기도회에서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증오와 배제의 정치를 걷어내고 화해와 용서의 다리를 놓아 평화와 통일을 길을 열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메시지는 김희권 목사(서울가향교회)가 전할 예정이다.

'통일 기도회'는 남과 북(탈북자),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하고 이야기 하면서 함께 상상하고 기도하는 평화의 기운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반평화의 기운을 밀어내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상상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초청한다. 특히 지역 교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기도회를 잘 활용해 줄 것을 주최 측은 당부했다.

웹 사이트 www.peacetogether.kr에서 참가신청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CTS '2017 백령도 기도원정대' 모집

희망, 사랑, 슬픔, 자연이 공존하는 곳 백령도 기도원정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오는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대한민국 최서단 백령도를 방문하여 중보 기도하는 '2017 백령도 기도원정대(이하 '기도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2017 백령도 기도원정대'는 2016년 CTS 독도 기도원정대'와 CTS 순교자의 길(전라남도)', 올해 3월 CTS 제주도 기도원정대'에 이은 네 번째 국토 탐방 기도 행사이다.

이번 순례여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기도문과 성경을 한글로 번

역한 칼 퀴틀라프 선교사(1803 ~ 1851)의 다양한 선교활동과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한반도 두 번째 자생교회인 중화동 교회를 찾아 19세기 백령도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역사의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한반도 최서단인 백령도는 북한의 장산곶과 인접한 지역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비롯한 여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흔적이 많은 곳이다. CTS 콜링갯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두무진(명승 제8호), 사곶

천연비행장(천연기념물 391호), 잔적박이 물범(천연기념물 331호), 콩돌해안(천연기념물 392호), 감람암 포획현무암(천연기념물 393호), 남포리 습곡(천연기념물 507호), 연화리 무궁화나무(천연기념물 521호) 등 백령도의 자연명소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희망, 슬픔,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백령도에서 초기 한국 교회의 흔적과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발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감동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원정대 참가문의는 CTS 대외협력국(02-6333-1062)를 통해 가능하다.

멈추어버린 시계 (11시 3분)

두란노교회 박관근 목사(본지 상임이사)

몇일 전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원폭자료관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 벌어진 끔찍했던 피해 현장을 살펴 보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본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비록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받은 인과응보임에 틀림 없었고 연합군 측에서도 전쟁을 멈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방산능과 낙진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일제시대의 고통과 6.25전쟁에 참여하였던 부친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반일 감정과 함께 전쟁에 대한 경각심 또한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의 젊

은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고 경각심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비판에



열을 올리기에 바쁘다. 당연히 지도자인 그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나라이니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원폭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는데 11시 3분에서 멈추어 버린 패종시계였다. 원폭투하와 함께 멈추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본은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지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가장 호전적인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국방이 튼튼해진 이후의 일이다. 우리는 사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기도와 경각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가스펠콘서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가스펠 콘서트가 오는 5월 28일(주일)오후 2시. 관악구에 위치한 영진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가스펠콘서트는 영진교회 문화사역부 제2회 기획 공연으로 보컬리스트 조서연, 테너 정진성, 바리톤 배성철이 함께 꾸민다.

보컬리스트 조서연은 Houston Community College, Associate in Arts Degree -Houston Baptist University 졸업, Bachelor of Music Degree in Church Music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주 Solo & Ensemble을 입상했다. 오디뮤직 음악교육곡 공연 배우와 혼성보컬 그룹 HisWill(히즈윌) 보컬리스트로 활동중이며, 디

지털미니앨범 'Blow'를 발표하였다.

테너 정진성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한세대학교 합창지휘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Musical 'School Run' 음악감독, Rainbow Harmony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Vocal Ensemble 'BLESS' Vocalist, Yeda Singers 지휘자, 현악 앙상블 'i-Sinfonietta' Soloist 및 공연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 예술고등학교, 푸른꿈학교, 포스코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바리톤 배성철은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석사과정

을 수료하였으며, 춘천 고음악콩쿨 성악부문 1위를 수상(2009)하였다. 서울시합창단 상임단원, 최훈차와 이어, Seoul Choral Musicians, Vocal Ensemble 'BLESS' Vocalist로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은 토크콘서트로 진행되며, 연주자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The Prayer(영화 '매직 스위트' ost), Nessun Dorma(G. Puccini - Opera 'Turandot'), 그 은혜로만(HisWill), 사랑(나훈아), 내가 영으로(박종호) 등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영진교회 문화사역부에서는 지역 사회 주민들과 함께 문화 복지적



삶의 유익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통과 나눔으로 전하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2-871-1151

예정(합동보수) 2017년 총회교역자 부부 하계수양회 공고

주제 :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마 28:1-10)



- 일시: 5월 29(월)~31(수)일 2박 3일 (부부함께 참석해주세요) ● 장소: 연승호텔(속리산)
- 주소: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3-2 ● 전화: 043-542-1500, 충무: 010-5355-2584
- 회비: 부부 14만원 1인 6만원
- 후원: 총회장 이규필 목사 100만원,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50만원, 정호석 목사 50만원
충경총회장 윤석철 목사 20만원, 서동기 목사 20만원, 각 노회 후원 20만원
- 연락처: 교육부장 전예희 목사 010-7617-3331

서 기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충 무 : 조영만 목사 010-5355-2584

본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영남대구신학원
학장 황흥주 목사

사단법인 예정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목/회/칼/럼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인가? -7-

마 7:21-23

선지자 노트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가되는가?

1.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불법인가? 매우 난해한 구절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문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고후 13:5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성경구절이다.

2.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불법을 행한 자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암아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 엡 1:5 2)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 거들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뵈전 1:23 3)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롬 3:20

3.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불법은 무엇인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본문에 무엇을 하였는가? 주의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 한다. 이런 자들을 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며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가?

4. 마 7:24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뜻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마 7:23 즉 불법을 행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 마 7:15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은 굼주린 늑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행악의 종자이며 생명의 열매와 상관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불에 던져질 나무다. 양의 옷을 입은 굼주린 늑대는 거짓선지자를 말하고 있으며 이런 자를 두고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5.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이웃들에게 하늘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마리아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자다.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는 행함이 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가진



손용계 목사
이치볼 코리아대표

예수 생명 하늘나라를 얻게 하는 것이다.

6. “도무지 알지 못한다.” 뜻은 부인한다. 란 말 인데 마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 말씀 하신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자란 뜻이 아닌가?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은 양의 가죽을 쓰고 예수를 대적하고 다른 예수를 증거 한자를 두고 한 말이다.

7.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예수 생명을 얻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가? 소년 다윗처럼 적장을 물리칠 물매 돌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가?

8.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모른다는 뜻도 된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말이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눅 10:17 주인은 자기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 하신다. 요 10:14 내가 내양을 알고 요 10:16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문제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 되었는가 중요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9.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지금부터 천국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 10:28-29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제사 할 필요가 없다. 히 10:10 거룩하게 되었다 하 10:14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한다.

10.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반듯이 흐리지 아니한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계 3:5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신다. 초대 교회당시 복음을 변경시키고 교회

를 교란시키는 거짓선지자 영생을 못 얻게 요한과 베드로가 전한 예수와 다르게 가르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온 자들이다.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거짓선지자들과 적지 않게 변

론과 다툼이 일어났다. 행 15:5-11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 구원에 관하여 예수로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포함시켰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장한다. 행 4:12 오늘날은 다른가? 사도들 시대와 같다.

11. 불법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법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율법을 포함시키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 거짓선지자 아난가? 그리스도로 부터 떨어진 자가 된다. 갈 5:1-4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약 2:14 란 율법이 포함 됐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포함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야고보서 기자는 약 2:10 에 저자 본인도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도 사람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야고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켜야 산 믿음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자의 의도를 재분석할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지저스타임즈/설교와 칼럼,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이란, 손용계, 2017 3 30)

12. 야고보서의 행함은 라합 같이 가족 친척이웃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행함이다. 이웃들에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행함을 말하고 있다 요일 3:14 천국을 얻게 하는 행함을 말 하고 있으며 이행함이 없으면 살인한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요일 3:15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며 예수 생명이 없는 믿음으로 이웃도 자신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약 2:14 반문하고 있다. 이웃 형제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일 3:10 이것을 두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율법적인 선행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요 하늘생명을 얻게 하는 행함으로 해석 되어야 바른 복음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왜 잃어버렸는가? (시편51:1-19)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내 신앙에 기쁨이 있는가? 살펴보자.

1.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사람으로 살 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1-5절. (잠언 28:1) “악인은 쫓아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구원의 기쁨이 없음은 내 삶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내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6-10절.

정직한 영,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때 어찌 기쁨이 있겠는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기쁨이 계속 됩니다. 11-12절.

성령을 근심하게하고, 성령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땅 관둔 절반을 감추었다. 12절 “자원



하는 심령을 주사...” free spirit 즉 자유로운 성령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유롭게 되어야한다. 어떤 것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막고 있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4. 주님을 전파하는 입술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13-15절.

13절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14절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라..” 15절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한결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전

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5. 주님 앞에 제사(참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16-19절.

1)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지 (롬12: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2)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19절. 오늘날 성도를 중에는 반쪽신앙이 많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중요한 새벽예배, 주일예배, 저녁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공공예배에 불참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신앙인이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을 보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책망했습니다. 잘못된 이것을 너희 왕께 드러 보라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6. 결론 :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왜 기쁨이 없는가?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점을 깨닫고 다시 회복해야합니다. 아멘

믿음의 도전! 전도의 열정! <유앙젤리온 전도학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고난과 굴욕의 십자가에 그 시선이 묶이지만, 영적인 삶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전도에 열정 가득한 유앙젤리온 교육생들 “내 앞에 있는 영혼! 전도로 구원하자! 나에게 맡긴 영혼! 사랑으로 양육하자!” 매주일 오후 2시가 되면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 된 <유앙젤리온 전도학교> 교육생들의 활찬 함성이 두란노강의실에 가득 울려 퍼진다. 헬라어로 ‘복음’이란 뜻을 담은 <유

앙젤리온 전도학교>가 문을 열었다. 각 교구에서 2명씩 선발된 66명의 교육생들이 11주 동안 정명환 목사의 인도로 강의를 듣고,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주중에는 현장 실습을 한 후 전도결과 과제물을 제출한다. 10주간 10번의 강의와 11주가 되는 5월 21일에는 폐회예배와 수료식, 전도간증, 전도대장 임명장 수여식 및 우수자 표창식이 예정되어 있다.

전도 뒤에 있을 풍성한 생명의 결실 기대해 전도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명환 목사는 “66명의 성도들은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매주 전도를 하며 실습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현실에 묶이지 않는 열정입니다. 그 열심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고난과 굴욕의 십자가에 그 시선이 묶이지만, 영적인 삶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실의 십자가라면, 그 뒤에 있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라며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전했다.

교육통해 생각변화, 하나님 주신 사명 유앙젤리온 전도학교 교육생들은 교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한다. “강의가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이민자 권사, 23교구) “전도라는 마음의 부담감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배우고 실습을 하니 힘이 됩니다.” (홍명화 권사, 25교구) 지난 4월부터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웃과 주변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이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김준현, 고재훈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이희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밤 예배: 저녁 8:00

금요일야예배: 밤 11:00, 새벽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 6:00

요한계시록 3장 강해(27)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호 이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이미 가진 것은 주께서 열린 문을 두서서 증거하게 하신 이 사역입니다. 그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말고 계속 앞장서서 달려가라는 말씀이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영혼을 살리고 신앙으로 이기는 것들이 모두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 지고 이것이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았고 또 열린 문을 두서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가 생기고 게을러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노력’하면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증거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불붙는 불덩이같이 되게 하여서 결국은 나가서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추월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교회의 기둥은 갈 2:9에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제바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의 기초가 12제자이지만 그들 중에서 더 압축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아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녀의 부모와 세 제자만 보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옛새 후 변형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요소가 많은 9명의 제자들은 평지에 두셨습니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성령강림 이후 사도행전 서두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말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날에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베드로의 말 한마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전리총회 총회장



디에 모태로부터 앓은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사역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앞의 사도들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아서 마지막 주자가 되어 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인 생명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순교의 종 야고보부터 144천의 반열에 해당되는 사도 요한까지 이 세 제자가 신약교회의 기둥입니다.

구약교회의 기둥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누가 나타났나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마 17:1-3).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중간에 시가서도 있지만 선지서가 주를 이룹니다. 선지서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요, 구약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다.”고 하신 성전의 기둥은 어느 성전의 기둥을 가리키나요? 이것은 미래의 성전기둥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은혜시대 교회를 지나서 환란의 날이 잠깐 있지만 이때는 순교하는 타작마당과 같고 그 이후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다스리고 예배를 지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로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성전에 1천년 동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년왕국 성전의 기둥은 순교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되므로 그 수가 많습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체로서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 우주 밖의 아버지 나라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출입하면서 1천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또 더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 받기 전, 에덴동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에덴동산이 교회의 시발점(始發點)이 되어서 지금 은혜시대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앞으로 환란 날에도 잠깐이지만 환란시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천년의 천년왕국 교회를 끝으로 성경 안에서 교교회원 역사가 다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장한국 목사 저, 『교회를 알면 신앙이 더 빛난다』, 주애출판사, 1999).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게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다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이것을 버리고 나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 사람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쓰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한 분(One God)이시며 인격(Personality)이 세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날 때부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영광을 너에게 준다.’는 확증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쓰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 위에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어린양의 아내다.”라고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 21:9-10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어린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 19:16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흰 말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그의 새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 위에 기록하는 것은 그 이기는 자가 “만왕의 왕”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천년왕국의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만왕들로 임명하면서 그 이기는 사람 이름 위에 만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sign)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세 이름이 이긴 자 위에 기록되는 크나큰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9)

〈지난호 이어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의 뿌리였지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씻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1서 3: 9).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1서 5: 475).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원수마귀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육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원수마귀와 죄와 육신에게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십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를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헐기 내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헐기 내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씻으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구세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이나 정죄,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비방 등의 죄를 범하고 ‘~하랴’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죄, ‘~ 지켜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풀이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인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열매인 죄들만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계속 그 죄를 회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또 헐기 났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수년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오 주님! 제 헐기 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 죄에서 저를 이미 해방하셨건만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사실을 믿사오니 이 죄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만을 자르는 회개를 버리고 뿌리를 자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새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람을 얻었고 주님을 영접 함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예전에 살았던 혼(육체)의 사람인 겉 사람은 옛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 63)고 하심 같이, 우리의 영의 사람인 속사람(새사람)만 하나님께 가치 있고 우리의 혼(육체)의 사람인 겉사람(옛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 16)라고, 또 “그 영광의 종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 16)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좇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좇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속사람(새사람)과 겉사람(옛사람)이 싸우는 영적 전투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그러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 22?25)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이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갈 5: 16). 이를 위해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이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24).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 10).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훈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정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상 “구원 서정의 5단계” 13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나호 이어서...〉

다섯째는 육신으로 저지를 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신다. 우리 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흠으로 지으셔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으면 내 혼은 보향을 찾아 가지만 육신은 흠으로 지으셨기에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돌아가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빌려 받은 몸을 잘 보존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빌려 쓴 것을 완전히 내 것처럼 아무렇게나 쓰다 깨지고 부서뜨려 더러워진 상태로 돌려준다면 이는 빌려준 분에 대하여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섯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죄이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고 말씀하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알아도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 데 그것을 모른다면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행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렉션(Direction)이다. 성경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궤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딤후 3:1-7)

3)참 회개(悔改, Repentance)만이 살 길이다.
죄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분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아집과 독선과 이기심이다. 이것들이 전부 욕심의 칼을 가지고, 자존심이라는 갑옷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빼돌어지고 어그러져 서로 부딪치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사십 일을 금식하셨으니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가 인간에게 심어준 욕심을 자극하여 유혹한다. 배가 고프는 것을 알고, 먹는 문제를 들고 나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빨리 먹으라' 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일갈하셨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물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 욕심이 살려면 떡이라는 물질이 필요하나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존재이므로 육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죄를 사함 받으려면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회개를 성막의 두 번째 단계인 성막들에서 하게 하신 것이다. 회개는 죄(ἁμαρτία)에서 그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자로 회개는 '돌이킬 회(悔)'

자와 '고칠 개(改)' 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말이다. 즉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 회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삶이 바뀌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는가. 성경에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 이라고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다. 롬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고 말씀하시고, 민 14장 28절에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또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감찰하며, 측량하시기 때문이다(창 16:13, 시 139:1-3, 렬 17:9-10, 절16:2). 성막의 들은 바로 죄인들의 장소요, 그곳은 회개해야 하는 곳이다.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인 변제단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죄를 가지고는 절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곳은 모든 죄를 다 대속받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고한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서 성막들에는 죄를 저주하는 톨곡소리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있다. 내 가슴을 찢고 한 줌의 찰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고 또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절월 십일)을 성일로 지정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 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로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날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다.
'절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민 29:7),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절월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 16:29),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굶은 배움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 35:13)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1)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나호 이어서...〉

일본에서 시행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학교제도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운동장 교육설비 교사진과 커리큘럼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일제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계속 별도의 교육을 실행 하려면 별도의 검물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노력을 기울여 매일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남감리교 선교회는 일제의 인가를 받기로 결정되므로 헨킨스 선교사는 마지못해 나중에 인가에 동참하게 된다.
1916년 최초로 일제의 사립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가장 명문으로 꼽혔던 배재학당이다. 당시 배재학당 장 이었던 신흥우는 1916.2.3일 이사회에서 고등보통학교의 인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인으로 선교사들과 달리 성경과목을 꼭 넣지 않으면 교육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둘째, 똑똑 공부시간에 넣지 않아도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저녁에 가르치면 되지 않겠는가. 셋째 고등 보통학교 인가를 받는다고 배재학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유예기간동안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신흥우는 졸업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나라가 없어지고 일제의 치하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인가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당연히 인가된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배재학당의 이사들은 대부분 감리교 선교사들이었는데 신흥우의 생각에 동조하였다. 이 계기로 다른 기독교 학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배재학당 운영에 함께 동참했던 재한개신교복음주의 선교회 에서는 감리교회가 너무 일찍 일제의 안에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은 만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선교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제의 입장이 바뀌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다. 불과1년 전 일제의 교육개정정책에 강력하게 항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하교회)

거하던 감리교선교사들이 한순간에 입장이 바뀐 이유를 듣고 싶었다.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연합하여 학교교육의 선을 이루었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하여 당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감리교를 치리했던 해리스감독을 제외하고 재한 감리교대표격인 노블(W.A.Noble) 선교사의 답변이다.
그는 먼저 선교협의회가 학교운영과 선교방식, 선교비 지출, 학교의 운영에 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은 일제의 규칙이 오히려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유익한길이 열려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리고 일제 의 인가를 받으면 선교사역에 더 자유로울 것이고 기독교의 발전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의 일제의 노련한 회유정책 이었다. 당시 총독부 내무국 장인 우사미는 개정된 규칙 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교사 안에서는 가르칠 수 없으나 다른 곳에서 남감리교회의 교육선교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감리교회가 세운 배재학당이 아펜젤러가 세상을 떠나자 남 감리교회와 공동 운영을 했었다. 1917년 개성 한영서원이 인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당시 한영서원의 초대교장인 윤치호의 변화이다.
한일합병 이후 일제의 교육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서 항거했던 윤치호는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서 그의 생각은 친일쪽으로 기울어졌다. 일제의 통치 안에서는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하고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는 대신 한국인들의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윤치호의 생각은 남감리교의 실질적 실세인 그램(W.G.Gram 선교사)도 같이하며 신흥우, 양주삼도 동의했다.1918서울 이화학당, 개성의 호수둔여학당, 광성학당, 후에 늦게 평양의 정의학당도 인가를 받았다.

당시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가리지 않고 서울쪽의 선교사들은 개방적이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선교사들은 보수적이였다. 감리교회는 일찍 고등 보통학교의 인가를 받아드렸고 장로교회는 성경도 못 가르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일제의 인가를 받아드리지 않기로 했다. 옛 명칭대로 중학교라 칭했다.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이들은 다로 검정고시를 치러야했다. 총독부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를 각종학교, 잡종학교라 지정하고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수 없도록 했다. 일제의 정책에 굴하지 않고 장로교회들은 열심히 그대로 학교를 운영해나갔다. 당시 주일학교수를 보면 장로교회가 2,095개 반면 감리교회는 265개교 밖에 되지 않는다. 장로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주일학교 교육에 치중하며 신앙과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르쳤는지 보여주는 예다. 일제 당국의 시행하는 공교육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많은 선교교 지원을 받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4)삼일운동 이후 일제의 교육정책의 변화
역사는 3.1운동은 실패로 끝났다고 기록된다.. 일제는 가까스로 시위를 진압하기는 했다. 3.1운동은 일부한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전국각처에서 전국적으로 만단위 지역으로 장이 서는 곳이면 모여들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우리민족의 바램을 담은 우렁찬 하나 된 함성이다. 이일로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온 세계만방에 우리민족의 함성이 전해져 갔다.
민족이 하나 되어 부르짖던 그 함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온 열방을 감동시킨 승리의 함성이요 훗날 해방의 기쁨을 우리민족에게 가져다준 미스바의 기도라 생각한다. 필자는 3.1운동을 새롭게 조명해 본다. “ 3.1운동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일 운동은 3.1일 벌어진 일이라 삼일 운동이 아닌 것이다. “삼일정신”에서 시작된 교육의 열매이다 .1902 수원에 삼일학교가 세워질 때 “삼일”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동기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광제일교회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벤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웅속 목사 (우술초)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 로 : 송두현 박성현
정립집사 : 강경규, 황성영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장한국목사 필리핀 선교기행문

필리핀 남부에 진리의 강렬한 빛을 받하다!

민다나오 섬과 세부 북부 및 중부지역 선교로 큰 성과 일어나!

경기도 의왕시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본지 부이사장, 예정진리총회장)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부투안, 보고(Bogo city), 반따안(Bantayan)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선교의 결과는 놀라웠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너무도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단 일행은 지난 달 26일(주일) 저녁 7시20분 인천 공항을 출발 세부에서 1박을 하고, 27일(월) 오전 민다나오 섬의 부투안을 향했다.



첫 방문지 민다나오 도착 이번 필리핀 선교는 그 땅의 남부에 속한 민다나오와 세부(Cebu)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진리총회장)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한국 목사는 한국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선교지 민다나오 섬에 도착했다. 사실 이곳은 회교 및 반(反)정부군들의 테러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섬 북쪽의 부투안은 비교적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무장단체들에게 추적이 된다 고 한다. 급속탐지문과 총기를 든 경비요원 등 인간의 폭력성과는 대조적으로, 푸른빛의 마지막 부투안 공항은 아자수들에 둘러싸여 매우 아름다웠다.

두 번째 방문지 부투안, 68명의 목회자를 참석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

부투안은 두 번째 방문으로 하나님께서 장 목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지다. 68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집회에 연이어 요한복음의 핵심진리를 증거 받았다. 일례로, 생령세계의 진리(요 1:1~4)와 요 3:3의 ' 거듭남 (be born again)'의 진리들이 특별했다고 본다.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genmao anothem(헬라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be born from above(하늘에서 나다)'로써 '중생자의 표는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전하자,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회개했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Amen!'으로 크게 화답했다. 그들의 심령이 갈급했던 만큼, 그 위에 내려지는 은혜는 더욱 풍성한 듯하다.

세 번째 방문지 보고(Bogo city) 50여명의 목회자들, 말씀 듣고 크게 도전받아 부투안 집회를 마치고, 차를 이용 다시 세부 북쪽의 보고(Bogo city)로 이동했다. 장 목사는 이 지

역을 세 번째 방문하는 곳이어서, 낮익은 목회자들이 많이 보였다. 약 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경청하면서 중간 중간 질문도 했다. 장 목사는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수만 번 읽었다고 말하는데, 내 경우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심령관에 engraved 해주셨다."고 하자 그들 모두가 도전받고 그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이끌렸다.

장 목사의 선교의 특징은 대언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친히 저술한 성경강해 단편본을 그 증거의 Text book으로 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가 끝나도 대언의 영으로 증거된 말씀이 책자로 그들의 손에 남아있어, 언제라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묵상할 수 있다. Lito 목사는 장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 책자를 "Very super nice commentary book"하고 극찬을 하며 사인을 받아갔다.

네 번째 선교지, 반따안(Bantayan) 40여명의 목회자들 큰 감동 역사일어나

네 번째 집회지 반따안(Bantayan)은 장 목사가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보고에서 배를 타고 1시간쯤 소요된다. 초면의 외국인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일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집회 초반부 40여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장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는 척박한 땅에 씨앗을 역지로 쑤셔 넣듯 어려웠다.

그때 장 목사는 창 12:1과 세례의 영적 진리와 보충설명으로 갈 3:28을 풀어서 말씀하신 후, 현지 목회자 한 분 한 분 지명하며 말씀을 근거로 한 'Q & A'를 했다. 정답인 "우리 모두는 남자도, 여자도, 필리핀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깨우치셨다. 그들은 장 목사의 질문에 "나는 남자, 나는 필리핀 사람..." 등의 답을 말하다가 정답을 깨달은

후, 자신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음에 숙연해졌다. 그 후로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갔다고 한다.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그들은 창세기와 히브리서 5~7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정체성과 그 사역을 증거 받았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계시면서 창세기 3장의 구원 역사를 하신 멜기세덱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새 소식! 그들에게 성경을 세밀히 다시 보고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화요일부터 닷새 동안 쉼 없이 계속된 집회가 끝나고, 주일날은 반따안 Present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 지역 선교책임자인 Rolando 목사가 시무하는 조그마한 현지개척교회로, 20명 남짓 성도들과 우리 선교단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장 목사는 이날 계 6:9~11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였다. 즉 종말 끝에 있는 오늘날 순교할 성도의 수와 환란 날 쓰실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채우시는 역사인 것이다.

◆ 함께 동행한 선교단원, 강사로 나선 장한국 목사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최전선에서는 장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단원들은 현장에서 돕고, 후방에서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다. 선교현장 소식을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하나님 말씀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 되도록 협력한 배 집사와 조 집사 등, 모두가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위엄 있는 동역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필리핀 선교! 왕복으로 야간비행을 하며 10일간 진행된 선교여행에서 우리 선교단원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의 진리를 마스터했다. 필리



핀에 불같은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 날마다 내리던 소나기는 뜨거운 열기에 지친 그들을 진리의 생수로 시원케 하였으리라. 그리하여 어둠의 땅이 진리의 빛으로 더욱 밝아졌으리라. Hallelujah!!!

한편 대한노회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역 감사교회(담임목사

김은임)에서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제18회 정기노회를 갖고 이어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지역 복된동산교회 담임 박영선 목사의 가임을 허락하고 환영했다.

동행취재 강화정 기자(주사랑교회 권사)

목사코너 120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 21:1-6)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 큰 역사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즉 온전한 사도 베드로 되기 이전의 시몬 베드로는 아직도 육적인 것과 찌꺼기 등이 남아있음을 계시해 주며 이를 뽑아내 주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뒤따릅니다. 이미 어부였던 그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마 4:19). 즉 어부에서 변하여 주님 제자로서 새 사람된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요, 그의 참된 길은 한 영혼 한 영혼 복음과 진리로 먹이며 살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습시다. 왜요? 이 육적 양식을 위한 이 길은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이 섭리하신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니 다(마 4:19).’ 본문의 ‘알지 못 하더라.’ 함은 원문이 ‘에데이산’으로 *aidou* 원형동사의 과거완료입니다. ‘서 계시다’ 함도 과거시제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자들이 바다에 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거기에 계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

다, 그리고 아침이 된 현재시점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주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 중심은 육적 양식인 고기 잡으려는 데만 몰두했었으니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지요.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먹을 것’이란 어부의 양식이 아닌 예수님 제자들의 양식이 있느냐는 뜻이지요. 이는 주님의 양식과 같은 것이지요(요

4:32, 34). 즉 원문으로 ‘프로스파기온’인 참 양식이 너희에게 있느냐? 는 것이요. 그러나 “없습시다.”했지요. 밤새 수고했으나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는 밤새도록 그물을 배 왼편으로만 던졌다는 뜻입니다. 왼편으로 그물 던지면 뒤만 보이고 자신들의 과거사, 잘못된 것, 부족한 것만 보이고 결

국 한탄만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오른편으로 던지면 앞을 보며 미래가 보이고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이 보이며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위대한 영광도 보일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면 너희가 찾으리라. 제자들이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올릴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므로 찾게 된다. 즉 믿음의 열매 맺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요, 이것이 제자들의 먹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설립34주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상련

설교는

- 담임: 모상련 목사
- 부목사: 모정선 김길현 박민수 모성은 (은퇴)장정화
- 협동 목사: 추정희 진안순 윤영옥
- 심방전도사: 파송전도사: 임재선(선교자베트남)
- 파송전도사: 김은미(선교자베트남) 안윤기(선교자캄보디아)
- 교육전도사: 김진희(선교자캄보디아) 김미경(선교자적도기니)
- 교육전도사: 편베트남신학교 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어린이 날의 창시자 방정환

글 출처 : 산마루서신(이주연)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을 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소망도 똑같은진대 돈 버는 일과 무상 복지에 최우선을 합니다. 어린이 날을 창시한 방정환 선생님은 조선의 미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여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보급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색동회>도 창설하고 독립신문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고 구국 운동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일본 형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방정환이라는 놈, 흉측한 놈이지만 밍지 않은 데가 있어…… 그 놈이 일본 사람이었더라면 나 같은 정부 나부랭이한테 불려다닐 위인은 아냐……

일본 사회라면 든든히 한 자리 잡을 만한 놈인데…… 아깝지 아까워” 방정환 선생님은 직접 구연동화에도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에 헌신하다가 과로와 비만으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구연동화 활동 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그가 남긴 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 하리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사진작가 곡완근 목사
(두란노교회담임)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미는 굼벵이의 모습으로 7년 정도의 땅 속 생활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지상으로 올라와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분명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벗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전에는 어둠속에서의 삶이고, 땅 속에서 기어다녀야만 하는 삶이고, 침묵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서의 삶이고, 마음껏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삶이고, 환희의 노래가 있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하다. 분명 같은 존재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다르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둠속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삶이고, 허무와 절망속에서의 삶이었지만, 거듭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서 자유하는 삶이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길들여진 욕에 속한 삶을 벗어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며, 높고 견고한 여리고서 앞에서 차라리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 가자”고 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아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스승의 고마움

글 : 산마루(이주연)

꿈을 꾸는 이에게 미래가 있고 스승이 있는 이에게 먼 미래는 가까운 길이 됩니다. 스승이 없다면 짧은 인생에서 큰 것을 이루기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스승의 큰 고마움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꿈을 이루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데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켜주시길 뿐 아니라, 시간 너머의 영원한 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 언제나 갚을 수 있으라

글 : 조강수 목사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밤을 낮 삼아 뛰어도 주님 은혜 언제나 갚을 수 있으라. 바닷가 모래알만큼이나 주님 은혜 받은 것 너무 많은데 꿈속에서라도 외치고 또 외쳐도 주님 은혜 언제나 갚을 수 있으라. 인생의 머리털만큼이나 주님 사랑 헤아릴 수 없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주님 은혜 언제나 갚을 수 있으라.

세월아!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진 종의 마음을 모르는 듯 야속하게 그렇게 쉬지 않고 흘러만 가는구나. 젊음아! 너는 구름에 달 가듯이 안타깝기만 한 종의 마음을 뒤로하고 야속하게 내 얼굴에 주름만 남겨놓고 흘러만 가는구나. 주님 언제나 갚을 수 있으라. 외치고 또 외쳐도 갚을 수 없는 주님 은혜 뛰고 또 뛰어도 갚을 수 없는 주님 사랑 나는 이 밤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은혜 갚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서 또 하루를 보낸다.



자연송가

글:정기환 목사

우리가 사는 곳엔 노래가 있습니다. 말없이 침묵하여 살고자 결단한 고고하여 묵묵스런 검은 바위에요 ◆ 봄엔 실바람 스쳐가는 선율을 담을 수 없어 뱉어내고요 ◆ 여름엔 빗방울 마주치는 화음으로 흥하달라지 않을 수 없어 뱉어내고요 ◆ 가을엔 낙엽 살랑이는 간지러움에 너털거리고요 ◆ 겨울에는 눈 내리는 사각거림에 한 자락씩이나 덮고서야 겨울을 납니다. 여기 아름다운 조화로움에는 보이지 않는 듯 주님 손길 따르는 지휘봉에 화답하는 자연의 합창임을 그 누가 아는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17 동여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 / 배 / 시 / 간 / 안 / 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 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 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일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충신대학교

실천목회연구과정

학생모집

제2의 종교개혁(성경적)에 참여하실 분!!
최단시일 성경전체 개괄 및 성경해석법
최단 신학체계 재정립/기초부터 핵심 전수
기존 그릇된 신학의 틀을 성경적 재조명
복음의 진수 터득/ 세계 최고의 복음과정!

1. 개강일(여름학기): 6월 8일(목:오전9:30-12:30)
2. 대상:신학희망자, 신학생, 목회자(남여)(이단제외)
3. 수업기간:3개월, 2학기후 수료(주1회수업,3개월도가능)
4. 수강료:학기당 30만카드결제 가능(두학기 동시수강시 교수개인 장학혜택 드림)
5. 모집인원:30명(현재 접수중, 선착순 마감)
6. 수강등록:충신대 http://lle.chongshin.ac.kr에 반드시 회원가입후 수강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상담바람)
7. 특전:충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 한국실천신학연구원 동시졸업, 한국복음주의연합 단체활동 및 기독교방송 활동지원
8. 기타 : 책임교수 상담 및 문자로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충신대학교 서울 동작구 사당로143(제2종합관)
(책임교수) 010-5525-8182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생명의 주권자 성경: 시편 61:5-6절 찬양: 253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자신의 장수(長壽)를 확신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왕권의 계속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영생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장수의 복 또한 하나님의 복이며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복입니다.

제목: 우리가 거할 곳 성경: 시편 61:7절 찬양: 197장

다윗은 말합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매우 큰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시기를 구합니다. 인자(仁慈)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목: 유일한 구원자 성경: 시편 62:1-2절 찬양: 390장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반석이시며 그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크게 요동

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잠시 요동할 수도 있지만, 오래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목: 환난과 핍박 성경: 시편 62:3-4절 찬양: 336장

다윗은 그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악인들은 계속 이웃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의 존귀한 지위에서 떨어뜨리지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했습니다. 악인은 거짓되고 이중적이며 위선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우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망할 것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제목: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경: 시편 62:5-8절 찬양: 26장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특히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목: 가치 있는 삶 성경: 시편 62:9-10절 찬양: 288장

다윗은 고난 중에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며 저울에 달면 모두 다 입금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며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니 허무하고, 존귀한 자라 해도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이나 죽어 썩고 말게 되니 오직 하나님을 섬길때만 그 삶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제목: 행위대로 성경: 시편 62:11-12절 찬양: 320장

다윗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적 역할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에

게 능력으로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원수들을 파하시며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목: 양모하는 자 성경: 시편 63:1절 찬양: 354장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양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육체도 하나님을 양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감추셨고 그를 멀리하셨고 그를 버려두셨던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목: 권능과 영광 성경: 시편 63:2절 찬양: 213장

다윗이 갈망하며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피조세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의 완전함, 그의 지혜와 능력의 완전함, 그분의 도덕성의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목: 영생의 비결 성경: 시편 63:3-4절 찬양: 436장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일을 축하하고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고귀한 생명은 너무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결국 늙고 병약하고 마침내 죽고 맙니다. 누가 사람의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인간이 건강과 장수와 안전과 또 영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구원의 날개 성경: 시편 63:5-7절 찬양: 419장

다윗은 본문에서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셨고 그를 견주셨습니다. 또한 원수의 꾀박을 막아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으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날개는 바로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날개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찾는 자 성경: 시편 63:8-11절 찬양: 92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든, 광야에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도우심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제목: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64:1-2절 찬양: 325장

다윗은 고난 중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어린 말을 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범죄케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 평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아뢰며 그분의 도움과 구원을 청해야 합니다.

제목: 사랑의 실천 성경: 시편 64:3-4절 찬양: 561장

본문의 ‘완전한 자’는 ‘흠 없는 자, 순전한 자’라는 뜻으로 경건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완전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의 교훈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살수록 각박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분리하려고 헛된 수고를 일삼지만 성령과 권능은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고, 문둥병자들을 씻어주었으며,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사랑과 권능을 나의 삶에 가져다줍니다. 또 성령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권능으로 충만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부귀영화나 지위, 명예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서부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병들고 지친 영혼,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목 사진가 작품 감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 대표회장(조경수 목사)
1 오산리교회(장수목 목사)
3 성산수양관(문호준 목사)
7-11 은누리복음화(김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장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반민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석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마사교회(장수목 목사)
7-9 살롱교회(고정익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교회(이희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8-30 반석교회(김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돌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1 에덴교회(양희목 목사)
24-27 선일교회(이민석 목사)

2016년 2월

1-4 감리산기도원(이옥란 원장)
8-11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봄철 축복 대심방의 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최희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경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9-11 한우리교회(문준복 목사)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6 초대총만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한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홍식 목사)
16 안양칼멜산기도원(이예재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사신학생 여름 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근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9 삼아특별교회(대성교회(예복교회))
11-13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18-21 수암교회(최유식 목사)
25-28 에덴교회(문준복 목사)
3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8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22-25 감리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사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6-28 디스망교회(박종현 목사)
29 군산영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4-27 새진영교회(성정화 목사)
31-1, 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양칼멜산기도원(이예재 원장)
7-9 살롱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리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가정선교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옥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감리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3-17 선교사 세미나
20-22 초대총만교회(김복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보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사 방문

봄철 축복 대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교회(장수목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안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2 네팔산교회(장수목 목사)
15-17 주영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준호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8 빛과성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사지역제 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식(대성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수도권지역 경기, 여주 주택·대지 특별분양

오픈

전원주택모텔하우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 전철역 개통)

택지 별도 분양

대지 363㎡(110평) 6,600만원(평당 60만원 대)

대지 330㎡(100평)/도로별도 33㎡(10평)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단지 내 수양관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대지 특별분양 (6,8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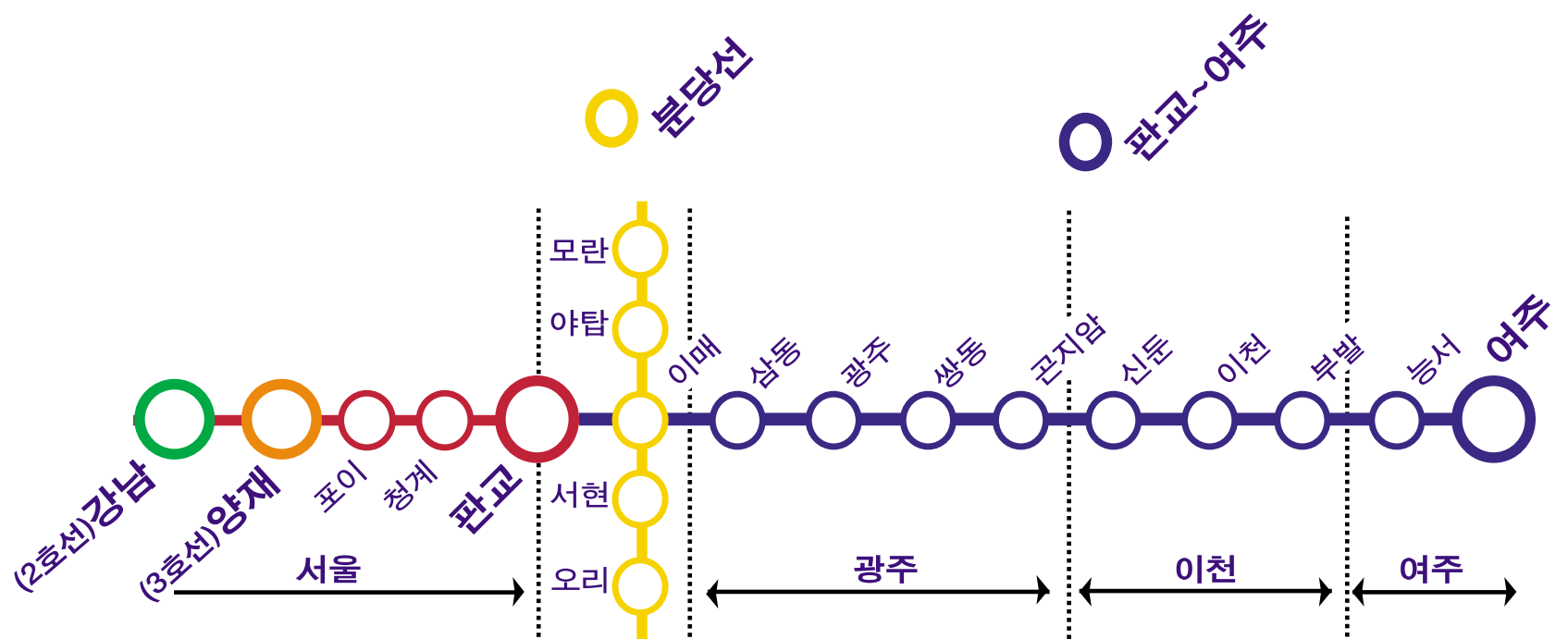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 330㎡/100평+도로(33㎡/10평)=333㎡/110평)
평당 3.3㎡/62만원 × 333㎡/110평=합계 6,820만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30평, 99㎡, 1억 8500만원/ 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22평, 72.6㎡, 1억 5500만원/ 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30평-(1층 72.6㎡/22평, 2층 26.4㎡/8평)
대지 333㎡/100평, 도로 33㎡/10평, 합계 366㎡/110평

은행대출 분양가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인터넷, 유선방송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